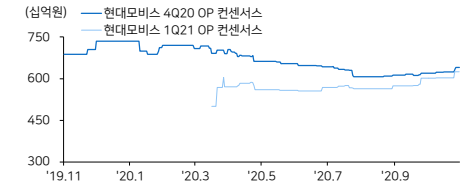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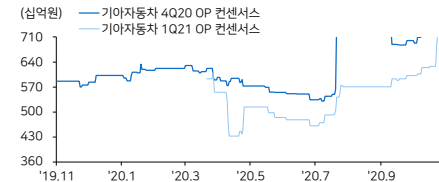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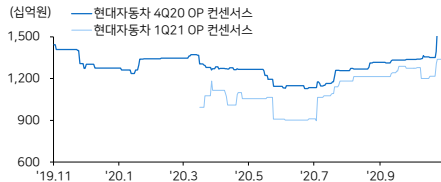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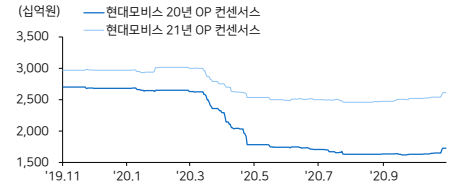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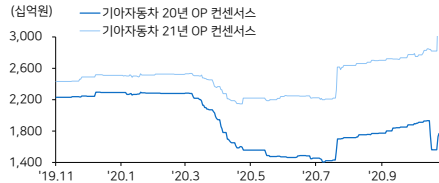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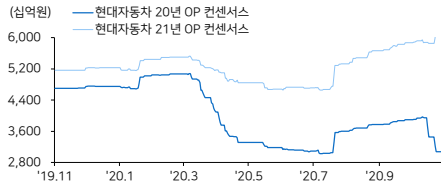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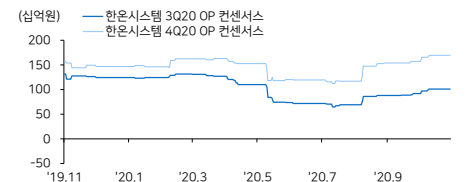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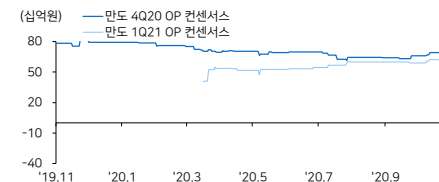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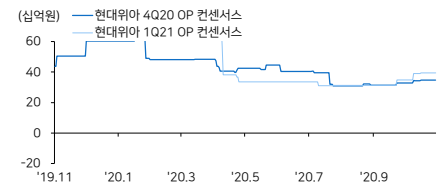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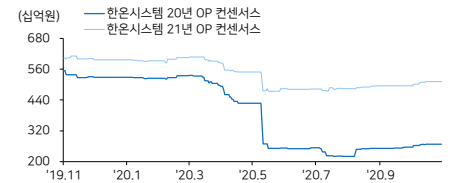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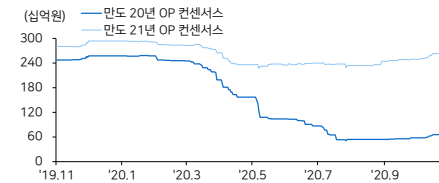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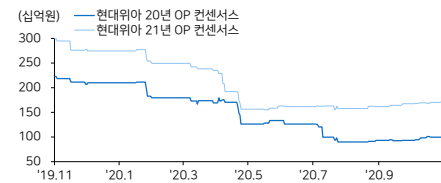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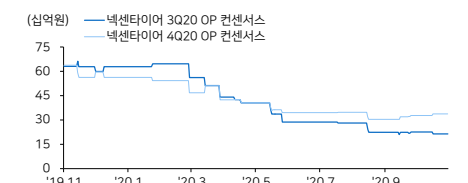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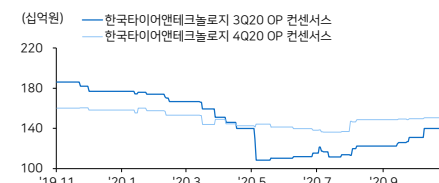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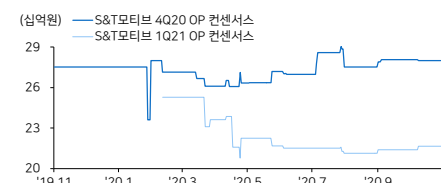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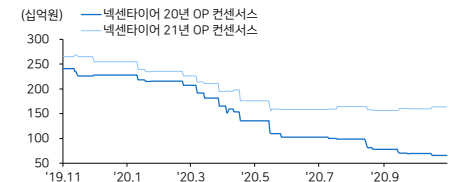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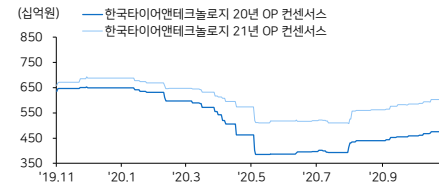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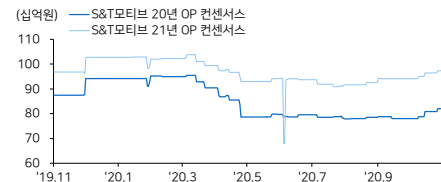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제네시스 내수 10만대 눈앞...중·유럽 공략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10월까지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내수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78%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중국과 유럽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음. 현재 경쟁 관계는 아니더라도 사업 진행 방향에 따라 공략 시장이 겹칠 가능성이 높음. <https://bit.ly/367FR4j>

모빌리티 판 키우는 현대차·SK·GS, 첫 경쟁 종목은 중과차? (일요신문)

모빌리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현대차·SK·GS그룹이 중과차 시장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이들 대기업은 최근 잇따라 중과차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음. 현재 경쟁 관계는 아니더라도 사업 진행 방향에 따라 공략 시장이 겹칠 가능성이 높음. <https://bit.ly/3oXVU5w>

현대차 노조 '류음작업' 여전...한행에 일 몰아주고 나머지는 쉬고 (서울경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음. 두 후보가 조세, 친환경 정책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 <https://bit.ly/3mOzVCW>

미국 대선...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쿠키뉴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산업계는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음. 두 후보가 조세, 친환경 정책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 <https://bit.ly/2IdaLYA>

기아차 중서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파이낸셜뉴스)

기아자동차가 중국 소비자들이 평가한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 기아차는 5일 자동차 시장조사 업체 JD파워 발표한 '2020 중국 고객 만족도 조사' 일반 브랜드 평가에서 '서비스 고객 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힘. <https://bit.ly/317aR2a>

기아차 노조 파업권 확보...한국GM 다시 부분파업 (연합뉴스)

한국GM 노조가 또다시 부분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하며 국내 완성차업계의 연세 파업가 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9년 연속으로 파업 수순을 밟게 됨. <https://bit.ly/2GAus3a>

미국, 베트남에 '환율관세' 첫 예비판정...표적국 늘리나 (연합뉴스)

미국이 베트남산 차 타이어에 환율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베트남이 자국통화 가치를 고의로 낮춰 수출품에 사실상 보조금을 줬다고 보고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 미국이 해당 관세를 적용한 첫 사례로, 다른 교역국에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임. <https://bit.ly/34ZhMMs>

자동차주행차 속도내는 중, 세계 최대 시장 되나 (머니투데이)

중국의 인터넷 기업 바이두(百度)가 최근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중국 정부도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운전 자동차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옴. <https://bit.ly/3p0FYG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